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8년 7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컬럼 :

송의운동장과 인천체육의 역사



인터뷰 :

송의운동장의 과거와 미래



I/D/I/소/식



제9대 어윤덕원장 취임식

지난 7월 15일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하신, 본원 제9대어윤덕원...

행/사/정/보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 경기북부발전포럼 제2차 토론회(7/11) : 경기개발연구원 031-...

Zoom INcheon



인천역사 - 7월

* 1882년 7월 17일 일본과 임오군란배상 제물포조약 - 임오군란으...

도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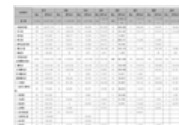
도시와 메가이벤트: 아이치박람회를 중심으로
2005년 일본 나고야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아이치국제박람회는 메가이...

IDI연구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옥상녹화 활성화 방안
옥상녹화는 지구적 수준의 기후변화에서부터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문...

인천지표



공공체육시설 현황

체육시설은 운동을 통하여 건강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공간으로서 스포츠 프...

승의운동장과 인천체육의 역사

인천체육의 요람(搖籃)으로 많은 시민들과 체육인들에게 사랑을 받아오던 승의종합경기장이 지난 6월 13일 주경기장 본부석과 서측 전광판 및 관중석이 발파됨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 인천의 경기장 역사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초기까지 중구 재물포고등학교 자리에 있던 '웃터골' 경기장에서 1920년부터 1926년까지 이용을 했고, 1932년 현 자리에 야구장과 400M 트랙 육상장이 조성되어 옮기게 된다. 이후 승의종합경기장 일명 "승의운동장"은 1934년 건립된 종합경기장과 지방최초로 건립된 도원야구장(1932년) 외 실내체육관(1975년)과 수영장(1980년)이 조성되어 스포츠타운화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인천시민은 물론 우리 체육인들의 숨결이 고이 묻어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승의운동장은 현대 체육시설로 3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중석과 육상트랙 그리고 천연잔디 축구장이 설치되어 있어 육상과 축구 등 한정된 종목의 경기만 열렸지만, 7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이곳 승의운동장에서는 육상은 물론 사이클경기장으로 저울에는 얼음을 얼려 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하였고 이밖에 시민(도민)체육대회, 학교(학년)별육상대회, 학도호국단 경연장 등으로 사용이 되었고 '82년도 먼저 철거된 소(小) 구장에서는 핸드볼, 테니스 및 정구 등 운동경기과 프로레슬링, 투전과 서커스 공연장 등 여러 가지 면으로 활용이 되던 곳으로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찾아왔고 사랑을 받던 곳이 아닌가 싶다.

이 운동장을 통해 해방 전·후부터 현대까지 배출된 유명 스타플레이어를 살펴보면 육상 투포환에서 6~7회 아시안게임 2연패를 기록한 백옥자선수와 사이클에서 3회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이흥복선수를 비롯한 유재명, 김광선, 박일우 등이 있으며, 우리 인천은 구도(球都) 야구의 도시답게 유완식, 박현식, 김진영 등을 비롯한 원로에서부터 정민태, 위재영, 박진만, 류현진 등 신세대 스타들까지 기라성 같은 수많은 스타선수들이 탄생된 곳이기도 하다.

"체력은 국력이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구호아래 매년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민족의 대제전인 전국체육대회가 제45회('64.9.3~8), 제59회('78.10.12~17), 제64회('83.10.6~11), 제80회('99.10.11~17)제전 등 4번의 전국체전이 개최되었고, 어린 꿈나무들의 잔치인 전국소년체육대회가 2000년 제29회 전국소년체전을 비롯한 두 번의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 사상최초로 인천에서 전국순회하며 개최되었던 제2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각종 국내외 대회가 개최되어 전국에서 모인 젊은이들의 함성이 메아리치던 곳으로 우리시는 물론 전국 체육인들이 한번쯤 찾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오랜 역사와 체육인들의 애환이 담긴 승의운동장은 낡고 노후된 체육시설이었지만 인천시민들에게는 여가공간으로 우리 체육인들에게는 젊음과 꿈 그리고 희망으로 대변되던 시설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승의운동장이 우리의 뇌리 속에 체육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고 긴 역사 속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체육인들의 마음은 서운함이야 말로 서 형용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요즈음 세태가 모든 분야에서 개발과 보전이라는 양립논쟁에 휩싸여 있는 것을.....

그러나 이 자리에 2013년까지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원역과 연계한 복합 상업시설과 주상복합 주거시설 그리고 시민프로축구 구단인 인천FC의 홈 경기장으로 활용할 2만석 규모의 축구전용경기장이 먼저 2011년까지 들어서게 된다. 물론 종합경기장의 철거로 육상과 야구 그리고 기타종목의 경기는 볼 수가는 없겠지만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축구경기장과 프로축구 구장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어있어 승의 별에서의 함성은 계속될 것이다.

한 세기 동안 인천시민과 체육인들의 공간으로 남아있던 승의운동장이 이제 상업과 주거 그리고 체육시설이 공존하는 최신키 웰빙타운으로 조성되어 더 많은 시민들이 찾고 생활하는 사랑 받는 공간으로 남을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08년 7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승의운동장의 과거와 미래

인천광역시 도시재생3과 임경섭팀장

인천체육의 역사와 영광을 함께해 온 승의종합경기장이 역사속으로 사라진지 한달여가 지났습니다. 인천광역시체육회 임경섭운영과장과 인천도시개발공사 송종섭팀장님의 인터뷰를 통해 승의운동장의 과거와 미래를 짚어보았습니다.



승의운동장의 역사

승의운동장의 역사는 1920년경 일제시대부터 시작됩니다. 일제가 당시 3·1 운동의 영향으로 일제의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취한 유희정책의 일환으로 현 제물포고등학교 자리(당시에는 윗터골이라 부름)에 1920년 11월에 “윗터골 운동장”을 건설한것이 인천체육의 발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3과
임경섭 팀장

그 후 1926년 확장공사를 거치면서 “인천공설운동장”으로 명칭하고, 1934년 현 승의동으로 이전할 때 까지 사용하면서 야구, 축구, 육상 및 각 학교 대운동회 등 각종 대규모 경기가 개최 되었으며 인천의 기차 통학생이 주축이 된 “한용단”이라는 야구팀의 활약이 유명했습니다.

승의동으로 이전해서는 약 51,600㎡의 운동장용지를 확보하여 1934년 7월에 5백 석 규모의 정구장을 완성했고, 2년 뒤에는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사무실 확장실 등을 준공했으며 야구장은 정면 1천 석, 좌우측 각 2천석 이었고 육상경기장은 400m 트랙으로 1만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에도 야구가 초강세 인기종목이었으며 겨울철에는 현 체육회관 자리에 스케이트장을 특별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1964년 제45회 전국체전이 개최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이 때 야구장도 12,000석으로 확장 하였으며 종합경기장은 유공코끼리 축구단 홈구장, 야구장은 삼미 슈퍼스타즈 청보핀토스, 태평양 현대유니콘스 야구단 등의 홈구장으로 사용되는 등 인천의 메인 운동장으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승의운동장은 야구장과 함께 인천체육 역사의 산실로 그 동안 수 많은 전국 체육대회와 프로스포츠의 홈구장으로 사용되는 등 인천체육의 장으로써 영광의 날들을 함께 했으나 시설이 노후화 되고, 2002 월드컵으로 건설된 문학경기장이 주 경기장으로써의 역할을 주도하게 됨에 따라 인천의 메인운동장으로의 기능을 잃게 되었고 주변 지역 도시기능의 슬럼화와 함께 더욱 역할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노후화된 승의운동장과 주변지역의 도시기능이 쇠퇴함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이 지역의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승의운동장 구역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재생사업의 시작으로 지난 6월 9일 철거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천체육에 있어 큰 역할을 했던 승의운동장이 철거되어 아쉬움이 크지만 이곳에는 최첨단 축구경기장과 고 품격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2010년에는 명품 경기장으로 재탄생하여 우리의 품에 다시 돌아올 것이므로 승의운동장은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승의운동장사업 추진의 계기

우리 인천은 지난 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 시대에 수도권의 관문인 인천항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철도 축을 중심으로 발전을 해 왔으나, 90년대 이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고 도시의 공간구조가 집단 계산 연수, 남동 등으로 확대 재편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되면서 상대적으로 인천항을 비롯한 기존의 구 도심 지역의 도시기능이 쇠퇴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출판영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시에서는 서역관영발전 전략으로 1거점 2축의(1거점:인천항, 2축:경인고속도로, 경인철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가정오거리, 가좌IC, 도화구역, 송의운동장 및 제물포역세권, 인천역주변개발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 도심인 송의운동장 지역 일원도 이와 같은 불균형의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송의운동장은 종합경기장으로의 역할과 기능이 현저히 축소되고 노후화 되어 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고 과거 대표적인 상업지역인 송의시장사거리 일원의 상권은 이미 쇠퇴한지 오래이며 도원역 일원은 대표적인 재정비 지역입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투자에서 소외되었던 구도심 및 기정 시가지들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도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 모델로 송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주변지역의 다른 중요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에 그 기대가 크다 하였습니다.



송의운동장사업의 이점

송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송의운동장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90,127㎡면적에 20,000석 규모의 최첨단 축구경기장과 도원역이 함께 연결되는 24시간 생활이 가능한 복합웰빙타운을 건설하여 그야말로 문화·체육, 생활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명품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까지 건립되는 최첨단 축구전용경기장은 2014년 아시안 게임을 대비하고 각종 콘서트의 장으로 운영하며, 지하공간에는 역사관을 건립하여 운동장 및 주변지역의 역사와 각종 이벤트, 체험관 등을 운영하여 송의운동장 구역만의 특별한 공간을 제공하고 선큰(Sunken) 광장은 지하층 까지 자연광을 그대로 유입하여 지상과 지하가 구분이 없는 입체적인 또 다른 상업공간을 창조할 계획이며 고품격 주상복합용 주거시설은 지하층의 상업·문화시설, 지상의 넓은 자연공간과 체육시설 등이 함께 어우러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한 철도·도로망으로 연결되는 럭셔리한 웰빙타운입니다.

송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이와같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지역주민의 여가생활의 장이 복합된 시민축제의 원형무대로 송의 아레나파크(Arena-Park)라는 함축적인 용어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이는 인천을 대표하는 지역의 명소로서 단지 전체가 도심속 공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송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세계적인 축구전용경기장이 인천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도원역과 연계된 시너지효과로 지역중심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도심속의 푸른 공원으로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으로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송의운동장의 역사는 1920년경 일제시대부터 시작됩니다. 일제는 당시 3.1운동의 영향으로 일제의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취한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현 제물포고등학교 자리(당시에는 웃터골 이라 부름)에 1920. 11월에 “웃터골 운동장”을 건설하면서 인천 체육의 발원이 됩니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8년 7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제9대 어윤덕원장 취임식



2008년 7월 15일

지난 7월 15일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하신, 본원 제9대어윤덕원장의 취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인천국제교류센터 최경보 대표이사, 신한은행 특수고객그룹 윤양한인천지역본부장, 신용보증재단 김한기 이사장 등 많은 귀빈들이 취임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제8대 김창섭원장 이임식



2008년 7월 14일

2008년 7월 14일제8대 김창섭원장 이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2005년 7월 15일에 취임하여지난 3년간 본원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열정을 쏟아주신 노고를 치하는 이임식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8년 7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 * 경기북부발전포럼 제2차 토론회(7/11) : 경기개발연구원 031-250-3114
- *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영상 콘텐츠 산업 정책 세미나(7/11)
: 제주발전연구원 064-726-0500
- * 푸른 자전거도시 대전을 위한 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심포지엄(7/14)
: 대전발전연구원 042-471-5692
- * [토론회] 음식폐기물 분쇄기의 서울시 도입여건과 시범사업 방안(7/16)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02-2149-1130
- * 경기 선진화의 길 - 전진의 2년, 희망의 2년- (7/21)
: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센터 031-250-3272
- * 제3회 도시에너지포럼-ZEC(Zero Emission City)구현을 위한 도시·건축분야 기술동향과
과제-(7/23)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기반연구본부 02-2149-1062
- * 대전인적자원개발센터 설립 4주년 기념세미나(7/24)
: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인적자원개발센터 042-471-5627
- * 민선4기 하반기 충남도정의 발전방향 모색(7/28) : 충남발전연구원 041-840-1114
- * [21세기낙동포럼] 대구경북의 지역 정체성 재발견 세미나(7/30)
: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연구회 053-770-5000
- *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포럼 제2차 토론회(7/30) : 경기개발연구원 031-250-3230
- * 지방의원 의정비 개선을 위한 토론회(7/3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02-3488-7300
- * [21세기낙동포럼]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지역건설업 현안과 과제(7/31)
: 대구경북연구원 동향분석팀 053-770-5134
- *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문제있다"토론회(7/31) : 경기개발연구원 031-250-3235
- * [제135차 대경콜로키움] 비용·편익분석의 적용과 사례분석(8/1)
: 대구경북연구원 053-770-5100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8년 7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역사 - 7월

- * 1882년 7월 17일 일본과 임오군란배상 제물포조약
 - 임오군란으로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으로 본조약 6개조와 수호조규속약 2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 * 1927년 7월 1일 부립공설시장에 어시장 개설
- * 1959년 7월 1일 경인선 제물포역 신설
- * 1975년 7월 11일 도크개항 1000번째 오션익 런던호 입항
- * 1975년 7월 26일 인천여자경찰서 폐지
- * 1981년 7월 1일 인천직할시청 개청
 - 시민의 숙원이던 직할시 승격(법률 제3424호 1981년 3월 13일 공포)이 이루어짐에 따라 비약적으로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1985년 12월 9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에 시 청사를 신축 준공해서 이전하였다.
- * 1982년 7월 13일 인천항개항 100년 기념탑 기공
- * 1983년 7월 1일 인천개항 100주년 기념식
 - 인천은 부산, 원산에 이어 3번째로 개항했고, 개항일은 1883년 1월 1일이라고 일본인 세계사연표에 기록되어 있다.
 - 1883년, 연안부두 향운아파트 앞 대로 한복판에 '인천개항 100주년기념탑'이 세워졌다. 그러나, 기념탑은 상징성 결여와 교통체증유발 등의 이유로 각계의 철거 요구에 의해 건립 20년이 되는 2003년에 헐리고 말았다.
- * 1984년 7월 10일 인천항 입출거 하루 24척 준공 10년만에 최고
- * 1985년 7월 2일 인천상의 창립100주년 기념식
- * 1987년 7월 13일 모기향질식 계산동 일가 3명 사망
- * 1989년 7월 2일 월미도 [문화의 거리] 개장
- * 1900년 7월 5일 한강철교 준공 경인선 완전 개통
- * 1993년 7월 5일 인천도시철도1호선 기공식
- * 1994년 7월 1일 송도해안도로 개통
- * 1999년 7월 1일 인천시 전국 처음으로 전국체전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 1999년 7월 6일 여성경제인협 인천지회(지회장 김현숙씨) 창립 총회

**** 위의 내용은 인천일보사발행 [인천연감] 인천사연표에서 부분발췌 수록한 것임.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8년 7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도시와 메가이벤트: 아이치박람회를 중심으로

도시경영연구실 채은경 책임연구원



도시와 메가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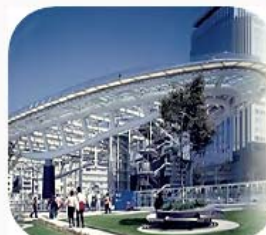
: 아이치박람회를 중심으로

2005년 일본 나고야 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아이치국제박람회는 메가이벤트의 경험 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사회적 유산을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아이치국제박람회는 BIE(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공인 엑스포로 2005년 3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총 185일간 '자연의 예지' 라는 주제로 열렸다. 공식 명칭은 '2005년 일본 국제박람회' 이었으며, 아이치(愛知)현에서 열린다는 것과 환경의 의미를 함하여 愛·地球博(약칭: 愛·地万博)으로 불렸다.



아이치 박람회가 열린 나고야는 인구 224만의 도시로 17세기 초에 일본을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나고야성(城)을 축조하고, 아홉 번째 아들을 성주로 봉한 뒤 발달한 오랜 역사가 있는 도시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때 시가지가 소

실되어 전후 도시계획에 의해 근대 도시로 재건되어 도시의 모습은 현대적 모습에 가깝다.



나고야에 1997년 아이치국제박람회의 개최가 결정된 후, 회장 주변 환경 문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촉발되면서 아이치 박람회가 무산될 뻔한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가 오히려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여 19세기나 20세기의 상의하달(Top-Down) 방식의 박람회가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가는 박람회 즉 하의상달(Bottom-Up) 방식의 박람회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하여 아이치 박람회는 나고야 시민들과 더불어 환경과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확고하게 공유하게 되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약 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하여 활동하였으며, 이를 연인원으로 환산하면 10만 명에

EXPOエクスポネー発行
随時配付行動

EXPOエクスポネー還元

이른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엑스포2005아이치자
원봉사센터’ 소속으로 참여하였다. 2005년 엑스포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300회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반적인 자원봉사 교육 뿐만 아니라 엑스포의
이념, 전문적 봉사 내용을 교육 받고 활동하였다. 이러
한 경험은 박람회가 끝난 후 3년이 지난 현재에도 약 3
만 명의 자원봉사자 중 10%에 이르는 3천여 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엑스포 당시 효과적이었던
「EXPO 에코머니」 사업은 현재에도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쇼핑할 때 플라
스틱 재질 비닐봉투의 사용을 거절한다든가 쇼핑봉투를 지참하는 등 환경을 배려하는 행
동을 함으로써 모을 수 있는 포인트를 식수나 식립 등의 환경보호활동에 기부하는 사
업이다.



아이치박람회 관련 데이터

방문객 관련

총 방문객수	22, 049, 544명	재방문률	38.1 % (2번이상 방문)
1일 평균 방문객수	119, 186명	외국인 방문객	4.6 % (1일 평균 5, 668명)
하루 최대 방문객수	281, 444명	엑스포 만족도	80 %
평균 관람시간	6시간 55분		

교통

엑스포장 밖	Līnīmo	8, 54백만명
	셔틀버스	2, 26백만명
	주차장 이용	4, 34백만명
	단체버스	3, 37백만명
	기타	3, 54백만명
엑스포장 내	Morīzo 곤돌라	3, 36백만명
	하이브리드 버스	1, 00백만명
	IMTS	1, 79백만명
	Kīccoro 곤돌라	4, 34백만명
	Gībal Tram	1, 13백만명
	Bīcycle taxīcabs	320, 000명

자료:

2005 Expo Japan (2006). 持続可能な社會をめざして “제단법인2005년일본국제박람회협회.

山田宗範 (2007) 愛・地球博의 성공과 준비과정 : 愛・地球博의 사례연구. 인천발전연구원 제6회 한중일 공동 심포지움 자료집.

愛・地球博블런티어센터홈페이지 (<http://www.vol-expo2005.jp/jp/index.html>)

2005년 일본 나고야 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아이치국제박람회는 메가이벤트의 경험
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사회적 유산을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아이치국제박람
회는 BIE(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공인 엑스포로 2005년 3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총 185일간 ‘자연의 예지’라는 주제로 열렸다. 공식 명칭은 ‘2005년 일본
국제박람회’이었으며, 아이치(愛知)현에서 열린다는 것과 환경의 의미를 합하여 愛・地
球博(약칭: 愛・地万博)으로 불렸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08년 7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옥상녹화 활성화 방안

옥상녹화는 지구적 수준의 기후변화에서부터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문제가 지를 함께 저감시키는 대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즉, 옥상녹화는 도시열섬완화효과, 우수를 저장하여 도시홍수나 도시건조화를 완화시키는 효과, 도시의 생물네트워크 및 생물서식지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옥상녹화 사례는 많지 않은 편이지만 국내에서 옥상녹화에 대한 연구는 2000년을 전후하여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서울시는 2007년에 10만 녹색지붕만들기 사업을 시작하였고 경기도 역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옥상녹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옥상녹화의 정의, 옥상녹화의 종류 및 구분방법, 옥상녹화 사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입증한 각종 연구자료를 분석하였고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용되는 각종의 재료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옥상녹화의 제한인자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구조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구조안전진단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옥상녹화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종과 옥상녹화이후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옥상녹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의 제도와 지자체의 지원사례를 분석하였는데 관련 법으로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건교부고시 등에서 옥상녹화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어서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옥상녹화와 관련되어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는데, 특히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서구의 조례가 다른 도시에 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자체의 지원현황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10만 녹색지붕 만들기 사업에서 대상지 선정 및 지원절차, 신청대상 건물, 우선 지원대상 건축물, 지원 내용 등의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고 경기도의 경우는 서울시와 내용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미국과 독일, 일본의 옥상녹화 시공사례, 지원사례, 관련 법 및 조례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 미국의 경우는 우리와 같이 옥상녹화사업을 도입하는 단계라고 판단되며, 일본의 경우에는 한참 옥상녹화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고 독일의 경우에는 옥상녹화사업이 이미 완숙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었다.

국내사례는 총 16개소의 사례를 답사하여 각 사례를 5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5가지 유형은 옥상정원유형, 옥상피복유형, 옥상비오름유형, 옥상화단유형, 옥상텃밭유형이 그것이다.

시정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먼저, 신규건축물의 옥상녹화 의무화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물의 녹화계획서 작성을 권고하고자 하였다. 건축물녹화계획서에는 건물과 관련된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옥상녹화, 벽면녹화, 실내조경, 건축물 주변 환경 등의 내용을 서술함으로써 옥상녹화 등 건물녹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신규 건축물옥상의 20~30%에 대하여 옥상녹화를 의무화하는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기존 건축물의 옥상녹화 지원강화를 제안하였다. 인천광역시 옥상녹화 지원 규칙의 제정과 지원체계구축, 관리가 용이한 설계지침 마련, 시범사업 실시 및 홍보강화를 제시하였다. 옥상녹화 지원규칙제정을 위해서 앞서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예시하였는데 대상지 선정 및 지원절차, 신청대상 건축물의 면적기준, 우선 지원대상 건물, 지원내용, 지원제외대상, 관리책임 등의 내용을 상술하였다.

관리가 용이한 설계지침 마련에서는 준공이후의 관리를 사업 신청자가 전담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관수나 낙엽등의 보관장소, 장비 보관장소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 기타 옥상녹화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시범사업 실시 및 홍보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본격적인 옥상녹화사업의 활성화를 제안하였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규모 공원 등에 옥상녹화 유형별 샘플원을 만들고 각종 꽃전

사회 등에서 옥상녹화관련 기술의 소개나 재료전시, 강연회 등을 개최할 것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녹화계약을 통한 관리책임 명문화와 옥상녹화를 이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녹지관리 강화, 시민 이용편의 제공 및 환경교육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녹화계약은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에게 묘목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형태로 체결하는 것으로 옥상녹화 지원 역시 녹화계약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관리의 책임 역시 명확히 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옥상녹화 사업이 추진된 이후의 관리 문제도 건물소유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과 동시에 옥상녹화관리에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옥상녹화 대상지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안내시스템이나 자료집 등의 제작, 환경교육장으로서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옥상녹화는 지구적 수준의 기후변화에서부터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문제까지를 함께 저감시키는 대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즉, 옥상녹화는 도시열섬완화효과, 우수를 저장하여 도시홍수나 도시건조화를 완화시키는 효과, 도시의 생물네트워크 및 생물서식지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8년 7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광역시 산업단지별 산업폐수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인천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 입주한 공장 중 폐수발생업체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체계적인 산업 단지 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도출된 문제 및 개선방안은 향후 산업단지 내 환경처리시설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인천시 산업단지내 폐수 발생 및 처리 현황

인천지역 산업단지내 폐수처리 배출업소는 2006년 12월을 기준으로 총 1,104개 업소가 입주하여 산업활동을 하고 있다. 이중 남동공단이 가장 많은 911개 업소의 폐수배출 사업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업종으로는 도금 및 표면처리 업종이 445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주요 8개 업종에 대한 산업폐수 발생 및 처리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유기성 폐수의 발생으로 생물학적 처리시설이 필요한 업종은 종이·목재제품제조업, 화학업 중 중 화장품제조 및 계면활성제 제조업, 식품업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활성슬러지 공법을 이용하여 폐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가공업, 유리요업의 경우 발생하는 폐수는 주로 세척, 냉각 공정에서 폐수가 발생하였으며, 오염물의 농도가 높지 않아 응집 침전의 간단한 처리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인쇄회로, 도금 및 표면처리업의 경우 모두 도금 공정에서 폐수가 발생하여 시안, 중금속 등을 포함하는 무기성 유해 폐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금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경우 폐수의 특성상 시안계, 중금속계, 산알칼리계 폐수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장이 발생 폐수를 한 저류조에서 모아 처리하였으며,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각각의 폐수를 분리수거하여 산화, 환원, 중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천시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 방법 및 공법은 다음과 같다.

〈표 1〉 인천지역 폐수처리 방법

구분	자체처리	공동처리	위탁처리	자체처리 + 위탁처리	공동처리 + 위탁처리	합계
업체수(개소)	309	249	456	59	31	1,104
분포율(%)	28.0	22.6	41.3	5.3	2.8	100.0

〈표 2〉 인천지역 폐수공법 분류

구분	물리·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재이용	위탁처리	물리·화학적처리 + 위탁처리	생물학적처리 + 위탁처리	재이용 + 위탁처리	합 계
업체수 (개소)	504	29	16	456	90	0	9	1,104
분포율 (%)	45.7	2.6	1.4	41.3	8.2	0.0	0.8	100

◆ 정책제언

사업장 관리 부분

-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확대 및 지속 시행으로 폐수처리 및 환경시설 전반에
과하 폐수처리 유역에 과하 주어 및 과려연종의 노하우 저수

- 철저한 폐수처리장 운영일지 감독을 통하여 폐수처리시설 문제점 발생시 신속한 원인파악이 가능하도록 함
- 중점관리업소를 대상으로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체계의 구축 및 주요 배출구에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구축하여 원격 감시체계 구축
- 위·수탁 폐수의 철저한 관리 및 위·수탁 폐수처리 업소의 집산화

기업 및 민간인 참여 유도 부분

- 폐수처리 관련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업종별 노하우 정보 공개의 장 마련
- 대기업과 중소기업사이의 멘토링 구성 및 파트너십 유도
-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제도를 홍보 강화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법, 제도 개선 부분

- 총량을 고려한 폐수처리 요금 부과로 악성폐수 생성 억제
- 산업단지 신규 입주 업체의 업종 제한을 통한 폐수배출량 증가 억제
-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 저리로 용자 지원제도의 확대와 환경공영제의 확대 도입, 배출권거래제도 등의 도입 등의 제도 개선 고려 필요
- 사후 관리 중심의 대책에서 오염물질발생을 줄이는 사전 관리체계로 전환 및 수질, 대기, 토양 등의 환경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제도의 도입 필요

본 연구는 인천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 입주한 공장 중 폐수발생업체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도출된 문제 및 개선방안은 향후 산업단지 내 환경처리시설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8년 7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공공체육시설 현황

체육시설은 운동을 통하여 건강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공간으로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의 필수요건이며, 체육활동 참여에의 강력한 유인동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체육시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여가공간이자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1에서는 체육시설을 설치주체나 운영주체에 따라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은 시설의 주요이용자와 이용목적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등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2007년말 현재 전국 공공체육시설현황(〈표 1〉 참조)은 10,946개소로 전년대비(9,949개소) 10.0% 증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시의 경우 393개소로 전년대비(369개소) 6.5%가 증가하였다(24개소 증가). 20007년에 증가한 공공체육시설은 축구장 2개소, 테니스장 1개소, 간이운동장 18개소, 체육관 2개소, 롤러스케이트장 1개소이다.

인천광역시의 공공체육시설 개소수의 전국 비중은 3.6%로 서울 1,997개소(18.2%), 부산 509개소(4.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축구장, 테니스장, 간이운동장은 서울과 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개소수를 나타내고 있다. 승마장, 골프연습장, 조정카누장, 요트장 등은 전혀 없는 실정이므로 2014년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시설로서의 확충 및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표1〉 광역시별 공공체육시설 현황

시설명목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주		대전		울산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10,946	83,047,660	1,997	11,385,685	509	2,347,950	280	1,306,461	393	2,594,124	212	1,401,225	189	1,013,093	197	2,271,110
1. 육상경기장	185	14,227,179	3	181,030	3	144,956	3	541,093	3	468,486	2	360,491	2	40,285	3	154,862
2. 축구장	395	12,177,432	56	1,906,535	15	122,804	12	273,837	9	181,247	5	102,777	3	216,611	13	1,310,258
3. 야구장	11	516,280	1	309,317	1	18,310	1	54,291	1	13,451						
4. 야구장	47	1,372,919	6	84,816	2	70,348	3	59,796	2	485,371	1	31,405	1	23,895		
5. 씨름경기장	11	412,566	1	35,023	1	31,548	1	46,972	1	59,356			1	59,439		
6. 테니스장	376	3,941,325	48	1,313,624	3	41,418	10	104,234	4	163,114	5	30,736	2	103,397	1	15,500
7. 씨름장	26	190,997	1	70	1	3,471	1	2,431	1	1,325			1	65	1	915
8. 간이운동장 (동내체육시설)	8,691	32,629,792	1,669	4,700,841	454	1,437,508	218	529,766	340	861,586	170	458,536	149	295,809	164	467,714
9. 체육관	586	9,329,916	88	2,015,102	11	165,180	13	122,732	11	150,584	13	169,572	12	108,840	5	124,104
국가체육관	225	6,313,146	14	1,622,838	5	122,561	3	95,485	6	104,440	3	77,373	7	46,329	3	97,781
투기체육관	33	213,677	4	0	2	6,893	4	5,725	1	9,721	2	2,324				
생활체육관	328	2,803,093	70	392,264	4	35,726	6	81,522	4	36,423	8	88,875	5	62,511	2	26,323
10. 수영장	223	1,975,999	76	491,258	2	26,814	11	102,933	6	22,907	7	55,132	12	100,569	4	51,397
11. 롤러스케이트장	88	779,845	14	40,098	9	52,677	1	15,700	6	94,673	1	19,223	2	12,367	1	18,300
12. 사격장	20	812,525			1	6,009			1	24,338					1	3,700
13. 국궁장	194	1,820,010	8	46,644	2	9,116	2	14,648	7	61,534	2	33,291	1	5,250	3	41,785
14. 양궁장	15	464,794	1	0	1	20,576	1	5,781	1	6,152	1	31,689	1	4,116	1	82,575
15. 승마장	10	955,299	1	12,692			2	37,337			1	33,152	1	28,991		
16. 골프연습장	34	477,668	20	232,074							3	66,001				
17. 조정카누장	6	1,158,606			1	25,252										
18. 요트장	9	190,349			1	138,561										
19. 병상장	19	214,161	4	16,761	1	33,402	1	14,910			1	9,220	1	13,439		

자료: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08

체육시설은 운동을 통하여 건강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공간으로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의 필수요건이며, 체육활동 참여에의 강력한 유인동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체육시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여가공간이자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8년 7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체육시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업은 당초 9개의 등록체육시설업과 11개의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05년 7월 29일 개정법률에서 등록체육시설업 중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 6개 시설을 시·군·구 사무인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으며, 2006년 3월 24일 개정법률에서는 17개 신고체육시설업 중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하였다.

최근 5년간(2002~2007년) 7개 시의 체육시설업 증감율을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18.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부산광역시가 1.8%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2002년 2,395개소에서 2007년 2,496개소로 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시·도별 체육시설업 연도별 현황(2002~2007년)

(단위: 개소, 만)

구분	시·도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02	업소수	42,320	9,114	2,653	1,812	2,395	1,188	1,112	856
	면적	198,155	2,852	4,516	1,580	1,985	339	1,799	1,729
2003	업소수	43,567	9,498	2,688	1,911	2,488	1,154	1,160	881
	면적	212,965	2,896	4,388	1,625	1,985	348	1,849	1,740
2004	업소수	41,672	9,214	2,585	1,813	2,331	1,094	1,140	828
	면적	228,849	2,943	4,356	1,556	1,918	314	1,842	3,104
2005	업소수	42,703	9,371	2,669	1,809	2,365	1,137	1,138	885
	면적	257,682,740	2,650,604	5,968,505	1,540,735	5,938,659	325,130	1,835,203	3,385,125
2006	업소수	43,168	9,400	2,644	1,842	2,432	1,172	1,172	909
	면적	282,163,313	2,724,428	6,008,363	1,553,069	5,896,276	547,489	1,867,704	3,528,088
2007	업소수	45,800	9,734	2,702	2,073	2,496	1,337	1,291	1,016
	면적	316,324,925	2,484,993	6,033,926	1,624,728	6,038,554	462,224	2,071,556	3,563,742

자료: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08

2007년말 현재 전국 시도별 체육시설업 현황(<표 3> 참조)은 45,800개소로 전년대비(43,157개소) 6.1% 증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 경우 2,496개소로 등록체육시설업 4개소, 신고체육시설업 2,492개소로 전년대비(2,432개소) 2.6% 증가하였다(64개소 증가). 16개 시도중 경기도가 10,55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서울시로 9,734개소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현황은 16개 시도 중 6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전국 시도별 체육시설업 현황(2007년)

(단위: 개소, 만)

시·도	계		등록체육시설업		신고체육시설업	
	업소수	면적	업소수	면적	업소수	면적
계	45,800	316,324,925	235	282,721,952	45,565	22,602,973
서울	9,734	2,484,993	0	0	9,734	2,484,993
부산	2,702	6,033,926	4	5,020,346	2,698	1,013,580
대구	2,073	1,624,728	2	950,470	2,071	674,258
인천	2,496	6,038,554	4	4,976,425	2,492	1,062,129
광주	1,337	462,224	0	0	1,337	462,224
대전	1,291	2,071,556	0	1,478,511	1,291	593,045

대전	1,291	2,071,550	2	1,470,011	1,209	992,949
울산	1,016	3,563,742	3	3,086,453	1,013	477,289
경기	10,551	124,893,673	112	119,670,938	10,439	5,222,735
강원	1,661	43,593,458	43	42,181,035	1,618	1,412,423
충북	1,384	16,271,165	16	15,383,334	1,368	887,831
충남	1,736	9,032,600	8	7,984,207	1,728	1,048,393
전북	1,810	11,670,545	10	10,910,435	1,800	760,110
전남	1,788	14,595,245	17	13,558,934	1,771	1,036,311
경북	2,664	25,090,051	24	23,077,959	2,640	2,012,092
경남	2,808	19,887,369	16	18,743,522	2,792	1,133,847
제주	749	29,021,096	34	26,699,283	715	2,321,813
제주						

자료: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08

최근 5년간(2002~2007년) 7개 시의 체육시설업 증감율을 살펴보면, 울산광역시가 18.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부산광역시가 1.8%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2002년 2,395개소에서 2007년 2,496개소로 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